

# 순창군, 섬진강 미술관 신관 개관

개관식·초대전 개최... 예술인 미술품 전시 공간·주민 문화교육 기회 제공

순창군이 섬진강의 자연풍경을 담은 섬진강 미술관 신관 개관식을 3일 개최했다. 군은 사업비 14억을 투자하여 적성면 평남리 483-1 일원에 면적 1,540㎡, 건축면적 240㎡ 규모로 전시실과 문화체험실을 갖춘 미술관 1동을 조성했으며 2020년 7월 착공하여 올해 4월 완공했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서부 내륙권 관광자원개발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섬진강 문화예술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인에게 미술품 전시 공간을, 지역 주민에게는 다양한 문화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군은 섬진강 자전거 도로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 개발을 위해 섬진강을 따라 한옥예촌, 섬진강 미술촌, 강변예술터, 무인공방 등 특색있는 체험공간 조성을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날 개관식에는 황숙주 순창군수, 신용균 의장, 지역사회단체장과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순창 군립도서관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아마추어 성악 동아리 '하울링' 팀도 참석하여 축하 공연을 펼쳤다.

기념사에서 황숙주 순창군수는 "올해 섬진강 미술관을 신축함으로써 순창군이 문화도시로 거듭나는데 한발 전진하는 계기가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섬진강미술관 신관.

특히, 개관을 기념하여 전라북도 한국화 대표 작가인 조현동 작가의 초대전이 함께 열려 눈길을 끌었다. 조 작가의 한국화 작품 약 30점이 전시되는 이번 전시는 개관일인 3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2달간 진행되며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수려한 한국화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섬진강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찾는 탐방객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섬진강 미술관을 비롯한 자연경관을 테마로 한 관광 인프라 구축과 예술체험 문화마을 조성을 통해 '건강과 휴양'이라는 순창의 지역브랜드를 강화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찾아가는 여성정책 토론회 개최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소장 이수인)는 3일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평등 교육경험을 주제로 '2022년 찾아가는 여성정책 토론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토론회는 전북도 지역의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경험을 나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초·중·고 현장 교원, 성교육 강사, 성평등 관련 활동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는 전주와 김제의 초등학교에서 시행한 성평등 교육경험, 전주시 중학교에서 진행된 성평등 이슈 토론 수업 사례발표, 남원 지역 여성 청소년들의 성평등 교육과 성차별 경험, 전북도 특성화 여고생의 고충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초·중·고 현장의 성평등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관심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이 이뤄져야 하고 특히, 학생을 둘러싼 교사와 양육자에 대한 교육이 동시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유호상 기자

## 군산 시민 위한 '옥산 동네시네마' 개관

군산대학교가 운영하는 군산문화도시센터와 군산시가 진행하는 옥산 동네시네마가 지난달 29일에 개관했다.

옥산시네마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와 토요일 오후 2시 옥산힐링센터(전북 옥산면 옥산로 245)에서 군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화를 무료 상영하며 주기적으로 영화감독 및 영화평론가를 초청해 관객과의 대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먼저 옥산 동네시네마 개관 기념으로 지난달 29일 정형민 감독의 '카일라스 가는 길', 30일 이창원 감독의 '내겐 너무 소중한 너'가 각각 상영되었다. 영화 상영 후에는 군산 시민과 감독과의 대화시간을 통해 영화의 배경 및 영화 감상평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6일과 7일 양일에는 정지우 감독의 '4등'과 후시하라 겐시 감독의 '인생 후르츠'가 각각 상영될 예정이다. 군산문화도시센터와 함께 '옥산 동네시네마'를 기획한 김대현 감독은 "옥산 동네시네마를 통해 군산에 정기적으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상영관이 생겼다"면서 "옥산 동네시네마가 군산 시민들이 영화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계



기가 되고 많은 시민들이 사랑하고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카일라스 가는 길'의 정형민 감독은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 84살 노모를 모시고 오지를 여행했던 영화의 과정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공동체에서 상영하는 영화에 오늘처럼 많은 관객이 모인 것 처음이다"며 옥산 동네시네마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시청각장애인의 문제를 다룬 군산의 비응향 및 명산동 일대를 촬영장으로 삼았던 '내겐 너무 소중한 너'의 이창원 감독은 "영화의 주제인 소름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 영화관에 영화를 상영하게 되어서 영광이다"며 영화 상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군산=김광훈 기자

## '전국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 성료

최도순 씨, 대상 수상

제92회 춘향제를 맞아 남원시와 전민일보가 공동주최하고 남원시노인복지관이 주관한 '제92회 전국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가 3일 남원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500여 명의 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식전공연인 지역가수 강혜원의 '어머니 마음' 무대로 가정의 달 분위기가 달아올랐고, 유니타스 앙상블팀의 퓨전국악공연으로 국악 고장으로서의 남원시의 면모를 선보이며 열기를 채워갔다.

참가자들은 선비춤, 한국무용, 훌라춤, 시낭송, 마술 등 다양한 장기자랑으로 그동안 숨겨왔던 끼를 선보이기도 했다. 결과가 집계되는 동안 국립민속국악원 원장이신 왕기석 명창의 사할가로 어르신들의 흥을 한껏 끌어올렸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최도순(광주광역시)



씨가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금상 김순자(전남담양), 은상 이재자(경기안산), 동상 차지현(경기구리), 특별상으로 국민연금 김현숙(인천광역시), 전민일보상 김유임(광주광역시), 우정상은 오정순(서울특별시) 씨가 각각 차지했다. 분상수상자(우정상제의)와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제92회 춘향제' 성대한 막 올린다

8일까지 광한루원 일원서 춘향선발대회·전통공연·댄스 경연대회 등 진행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문화 축제인 제92회 춘향제가 '다시 사랑'이라는 주제로 5월 4일 성대한 막을 올려 8일까지 열리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열리는 사실상 최초의 대규모 지역축제인 춘향제는 그만큼 국민적인 관심도 대단하다.

이번 춘향제는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쳤던 상황에서 축제가 기획되었던 만큼 풍물장터가 열리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광한루원 주변 상가들과 연계해 먹거리는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7개의 마당(춘향마당, 광한루마당, 월매마당, 방자마당, 향대마당, 몽룡마당, 2)에서 전통공연, 클래식 공연, 댄스 경연대회는 물론, 관객들이 참여하는 체험형 공연부터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펼치는 명품 공연까지 다양한 공연이 행사기간 광한루원 일원을 수 놓는다.

4일에는 30명의 분선 출전자 경쟁하는 춘

향선발대회가 라포엠, 이봉근, 안성준, 체리벨렛의 축하 공연과 함께 오후 7시 30분 춘향마당(원월정에서 열린다.

5일에는 역시 춘향마당에서 국내 최고의 트로트 가수인 김연자와 제46회 춘향국악대전 명창부 대통령상 수상자인 박애리 명창이 참여하는 공식 개막공연이 개최된다.

그 외에도 변진섭 심야콘서트(7일 22시, 춘향마당)와 소명, 송대관, 박진도, 문희옥, 민지 등이 출연하는 춘향골 열린음악회(8일 19시, 춘향마당)도 계획되어 있다.

축제 중간인 5일에는 밤 9시부터 10분간 오랜만에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할 불꽃놀이가 승사교에서 펼쳐지며, 제92회 춘향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춘향제전위원회(063-620-5785)에 문의하거나 춘향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 '2시간 탈출 즐탄쇼' 6월 4일 전주 온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2시간 탈출 즐탄쇼' 전주공연이 오는 6월 4일 오후 3시와 7시 두 차례에 걸쳐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진행된다.

'2시간 탈출 즐탄쇼'는 실 관객의 평점9.0로, 코미언극 순위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는 공연이다. SBS '웃찾사', tvN '코미디빅리그', 부산국제 코미디페스티벌 등 여러 방송과 무대를 통해 입증된 즐탄 개그 실력 또한 돋보인다.

'무척(졸리) 탄탄하다'는 이름처럼 촘촘하게 짜인 서사와 스토리텔링은 '즐탄쇼'의 전매특허다. 올해로 벌써 결성 15주년을 맞는 즐탄의 팀워크는 2시간 여 되는 공연에서 여실히 드러날 예정이다.

한편 즐탄쇼 공연은 만 7세 이상으로 어린 자녀들과 동반 관람이 가능하다. 특히 누구나 참여 가능한 퀴즈 이벤트도 있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